

# 시공을 초월하여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時空を超越して眞の自由を享受することが出来る

지쿠우오 초오에츠시테 신노 지유우오 쿠포주스루 코토가 데키루

賛美歌の中に「私のいのちとなる主よ」という歌詞があります。この言葉は「人間の生命が神」ということだ。人間を永生できるようにする理由は、人間の中に生命になる神がいるからこそ可能だ。なので神様のめあては一人だけが勝利者に成し遂げられれば終りなのです。 찬송가에 나의 생명이 되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인간 속에 생명이 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승리자로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なので神様のめあては一人だけが勝利者に成し遂げられれば終りなのです。最先に勝利者に成し遂げられたその一人に依って人びとがすべて勝利者になることが出来る。私が歩んで来た道はあまりにも険しい道だったので、皆さんがそのように等しい道を歩むことは出来ない。神様は一人だけが救い主として成し遂げられれば、神様の使命は終るのです。二人も、三人も必要ではない。一人だけが救い主として完成されれば全人類がそれによって完成する。 맨 먼저 승리자로 성취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긴자)'이 걸어온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구세주로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도 필요 없고, 셋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완성이 되면, 온 인류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人間の體を持っている限り完全な幸せというのは存在しない 人間の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한 행복이란 없어

この世の人びとは幸福になれると信じているが、人間の體を持っている限り完全な幸せというのは存在しない。人間は、時間の中で束縛された生活をしているから完全な自由がなく、不自由な世界にいて幸せすら享受出来ないのです。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한 행복이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건, 시간 속에서 속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없는 고로 자유 없는 세계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今日、高度な、そして高い境地の學問をしたといっても、どれほど高いレベルの博士と言っても根本となる學問を知らない。だから、今日、救い主が来て、「この世には學問もなかった、宗教もなかった」という全く新しく珍しい言葉を話すので、最初はすべてが戸惑って理解が出来ず首を傾げたのです。しかし、結局はすべての人に分かる日が来ちゃう。 오늘날 고도로 높은 경지의 학문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수준의 박사라고 해도 이런 근본이 되는 학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세주가 와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종교도 없었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떨떨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幸せを成立させる快は時間が存在する中では感じられない。時間があれば時間によ

って束縛された生活をするしかないので自由がなくなる。快は完全に自由の中に存在します。ですから快と幸福の中に永生が存在するのであって、永生というのは束縛された生活の中には存在しない。時間が流れ空間がある世界では永生がありません。 이 행복이라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야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있으면 시간에 의해서 속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고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은 완전 자유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행복 속에서 영생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것은 속박된 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救い主はこの世に来て一番先に人間を全て神に作ることをする。その次に時間と空間を無くすことをする。そうなればこの世は樂園に変わって言え知らぬ快樂と幸せの中で永遠に生きるのです。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해 말할 수 없는 쾌락과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しかし、人間の體を持って永遠に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人間の體をまとしていけば時間の中に住むように成っていて、また、空間の支配を受けて生きるかゝりはない。しかし、この世の人たちは、このようなことを知らないし、學識が高い博士でもよく知らない。 그러나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시간 속에 살게 되어 있고, 또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간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아무리 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박사 중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견 모릅니다.

これを知らないから、われわれは「これから少しはよくなるだろうか、明日はよくなるだろうか」と期待して生き、期待通りには行かず失望と挫折を繰り返して最後には死の神に捕えられて死ぬ。 そのように消滅してしまうことは靈魂も何も残らずに終ってしまうことです。 人が死ぬ時とは生命が死ぬことであって體だけが死ぬのではない。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이 '전부 이제나 날까 저제나 날까 내일나 날까 모레나 날까' 하는 날까날까 하다가 살면서 기대대로 되지 않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하다 결국 사망의 신에게 사로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멸해 버리는 것은 영혼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이 죽는 것이지 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生命というのは靈であり、靈は神様です。神様は人間の血の中に存在し、それがまた人間の心であり人間の靈なのです。ところが、人間の中にある生命を、死の權威を取った魔鬼が殺すのです。 そうして生命が死ぬので靈が死んで消滅するのです。このような理を人びとは知らずにいるが、皆さんは勝利祭壇に出て救い主から習っている。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인간의 핏속에 존재하고, 그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생명을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죽으니까 영이 죽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승리제단에 나와서 구세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 어제 보던 초라한 산성이 이제는 임금을 알현하려는 사람들로 즐이 선 궁궐과 같이 되느니라

### 生初之樂(九) 생초지락

日月有數大小定 일월유수대소정  
聖功生焉神明出 성공생연신명출  
逢別幾年書家傳 봉별기년서가전  
更逢今日修源旅 경봉금일수원러  
誰知今日修源旅 수지금일수원러  
善人英雄喜逢年 선인영웅희봉년  
英雄何事從盤角 영웅하사종반각  
月明萬里天皇來 월명만리천황래  
春香消息問英雄 춘향소식문영웅  
昨見山城今宮闕 작견산성금궁궐

일월은 각기 운행도수가 있고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느니라. 성인이 공을 들여 생(生)하려 하였으나 이제야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오이라. 서가(書家)에 전하여 오기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된다는 수원나그네를 오늘에야 다시 만나느구나. 누가 오늘 수원나그네를 만날 줄 알았겠는가? 선인(善人)과 영웅(英雄)이 만나 하나가 되니 기쁘도다. 을을이 궁공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고 궁공을을 정도령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는가? 라는 의미이다. 영웅은 무슨 일로 심승의 이치(반각盤角=낙반사유)를 따르시는가? 보름달은 밝은데 구만리 장천 먼 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보름달은 15진주의 뜻이요 천황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15진주가 되어 마귀를 이기신 빛의 성령을 뿌리며 오신다는 의미이다. 춘향의 소식을

듣고서 물어 물어 영웅을 찾아보니 어제 보던 산성이 오늘 궁궐이 되었더라. 춘향(春香)은 영웅(삼위일체 하나님=81공 정도령=15진주=수원나그네)으로부터 나오는 감로해인(감로수=이슬성신)으로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죽여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삼신신의 불로초 불사약이다. 지난날에는 찾는 사람들이 없어 81공 정도령이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진리말씀을 하던 장소가 초라한 산성과 같았으나 이제는 임금을 알현하려는 사람들로 즐이 선 궁궐과 같이 되느니라.

知解此書有福家 지해차서유복가  
未解此書無福家 미해차서무복가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是誰敢作此書傳 시수감작차서전  
三尺金琴萬國神絳化 삼척금금만국조선화  
利勿重劬四海裂蕩 이인중검사해열탕  
神化經云河圖洛書易明理  
神化經云河圖洛書易明리

乾性牛牛性 건성우우성  
乾逢坤而爲馬牛 건봉곤이위마우  
坤逢乾而爲牛馬 곤봉건이위우마  
牛聲在野九馬世 우성재야구마세  
德厚道牛馬聲 덕후도우마성

이 글(격암유록)을 알고 이해하면 복(복사영생의 복) 있는 집안ियो 이해하지 못하면 복 없는 집안ियो다. 이 글 속의 말씀은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 글(격암유록)을 누가 감히 지어서 전했다 하리요 영웅(81공 정도령, 수원나그네)이 탄주(彈奏)하는 삼척(三尺)의 금 거문고 소리(사람 몸을 죽지 않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에 만국이 본을 받아 조선(대한민국)과 같이 되고 크고 예리한 칼(감로해인)로써 온 세상 마귀를 박멸소탕 시키리라. 신화경(神化經) 즉 격암유록에 이르기를 하도낙서의 이치를 밝힌 주역에 의하면(하도낙서의 양백에서 심승 정도령이 나온다는 이치) 태초에 살고 있었던 우성인은 우성우성 즉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복두철성신이니라. 하늘(하나님)의 성품이 우성(牛性)이니라. 건(乾=하늘)이 곤(坤=땅)을 만나면 마우(馬)가 되고 곤(坤=땅)이 건(乾=하늘)을 만나면 우마(牛馬)가 되느니라. 마우(馬)는 천지비괘(음양이 부조화不調和, 불상통不相通)를 말하고 우마(牛馬)는 지천태괘(음양이 화합, 조화, 만사형통)를 말한다. 우성인은 이 우주를 천지비(天地否)에서 지천태(地天泰)로 변화시키니 이른바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소 울음소리가 들에 있음은 금운을 좇아오신 하나님(정도령)이 세상에 나타나심ियो 후덕하고 영원한 생명의 도를 퍼시는 정도령의 진리 말씀(우마성牛馬聲=마음이 지천태가 된분의 말씀)을 뜻함이니라.

何者能知出此人 하자능지출차인  
此人是非是眞人 차인비사진인  
仙藥伐病滅葬埋 선약벌병멸장매  
葬埋滅夷神奇法 장매멸이신기법  
誰可覺而見不笑 누가각이견불소  
人得是非而然後能成 인득사비이연후능성

## 死んでから靈が別な世界に行くと言うことは嘘です 죽으면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거짓말

私が教える以前には、皆さんは人びとが死ねば肉體だけが死んで靈は他の世界に行くと思ったでしょう。ところが、實際はそうではない。靈というものは死んで別の世界に行くことは出来ないのです。死ぬということとは、靈が死ぬことなので死んだ靈が何處へ行くことが出来ますか。 이 사람이 가르치기 이전에는, 여러분은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만 죽고 영은 다른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영이라는 것은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이므로 죽은 영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それについて聖書のヨブ記14章10節に書かれている。「しかし人間は死ねば消えうせる、息が絶えれば、どこにおるか」と記されている。「人が死ねば二度と生きることが出来ない」という言葉は靈でも何でも全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성경의 욥기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욥기 14:14)”는 말은 영이든 뭐든 다 없다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中の人びとは、人が死ねば靈が立ち去ると考えていたが、それはまさに魔鬼が全ての神様の子である人達を消滅させてしまう爲の目的を持って人びとを誤魔化して來た。死ねば靈の世界に行ってよい暮らしが出来ること嘘の希望を人びとに與えて死ぬことを恐ろしく考えさせず、生の希望を自ら諦めさせたのです。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을 전부 소멸시켜 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죽으면 영의 세계로 가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거짓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죽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삶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ある人びとは自分は信仰があるから、死んで天國に行くと考えて樂に死んだりもする。これが魔鬼が神様の子である人びとを全て消滅させてしまおうとの目的で人びとを誤魔化て來たことです。ところが、終末の時、救い主がこのように秘密にして隠されていた事を全て明かして知らせてくれるのです。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을 모두 소멸시켜 버리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같이 속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지막 때, 구세주가 이렇게 비밀리에 숨겨진 사실을 전부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人びとは心があるから車も作り、飛び回りたい心があるから飛行機も作って乗り回す。飛び回りたい心がなくなったら飛行機が發明されなかった。早い時間に走りつたい心があったから、車を作って走って行くのです。このように心によってこの世が動いている事をわれわれは發見することが出来る。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고,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만들고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달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心によってこのようになってきたので永生の心を抱けば、必ず永生の世界が私たちの前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 이같이 되어 왔기에, 영생의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영생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人能得雲雨而後成變化  
인능득운우이후성변화  
今世士者無識人何可人物  
금세사자무식인하가인물  
誤貪利欲人去弓弓 오탐리욕인거궁궁  
我來失矢出判歇天 아래사시출판흔천  
有勢弓弓去 屈無勢矢失來  
유세궁궁거 굴무세사시래  
空中和言心中化 공중화언심중화  
道通天地無形外 도통천지무형외

어떤 사람이 이분의 출현을 능히 알리  
요 이분을 두고 옳다 그르다 하니 시비가  
많은 진인ियो다. 먹으면 신선이 되는 불  
로초 불사약 즉 감로해인은 병마를 몰리  
치고 죽은 시신을 매장하는 일(죽음)을 없  
애주느니라.

죽음을 없애주는 공을 심승인 정도령의  
신기한 법술을 누가 가히 알 수 있겠는가?  
이를 보고 비웃지나 말아라. 사람이 시비

를 얻어 겪은 연후에야 능히 완성될 수 있  
고 사람이 감로해인을 얻은 후에야 변화  
를 입을 수 있느니라. 지금 세상의 선비란  
자들은 무식한 사람이니 어찌 가히 인물  
이라 하리요 그릇된 길을 가고 탐심이 많  
고 물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활  
할 떠나가느니라. 나 하나님은 올 때는 살  
살 오지만 심판하러 나올 때는 하늘이 흔  
들리리라. 위세를 부리는 자로부터는 활  
할 떠나가지만 자신을 굽혀 마음을 비우  
고 겸손한 자에게는 삼금삼금 삼삼 오리  
니 하나님의 온화한 말씀이 공중에서 들  
리듯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마귀를 박멸소  
탕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느니라.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온천지에 통하며 무형(無  
形)의 밖에까지 통하느니라. 한 마디로 무  
처불통(無處不通) 즉 통하지 않는 곳이 없  
다는 뜻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